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가지 국가를 함께 부르는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디 스템>과 <앵코시 세케레레>라는 두가지 국가(國歌)를 부릅니다.

1994년 넬슨 만델라(Nelson (Rohihlahla) Mandela: 1918~)가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하자, 뿌리 깊은 인종차별 정책에서 벗어난 흑인들은 그들의 국가마저 바꾸고 싶어했습니다. 백인이 만든 흑인 차별법을 없앤 것처럼 백인들이 만들어 불렀던 국가인 <디 스템>을 더 이상 흑인들이 따라 부를 이유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회의장에 모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대표들은 백인들이 불렀던 국가 <디 스템>을 없애고 그 대신에 흑인들 사이에서 불려지던 <앵코시 세케레레>를 국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이 그곳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만델라가 회의장에 도착하였고 사회자로부터 국가를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은 만델라 대통령이 기꺼이 이에 찬성하리라고 여기고 허락이 떨어지기만 하면 악대의 주악에 맞추어 크게 새로운 국가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델라가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사람들은 쥐 죽은 듯 고요히 그의 승인의 말을 들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 밖의 말이 만델라에게서 나왔다.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디 스템>은 오랫동안 백인들이 불러 온 국가입니다. 우리가 <디 스템>을 없애고 흑인들만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도 백인들과 똑같은 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듯, 흑인들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바꾼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걸어가야 할 길, 즉 백인과 흑인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이 틀렸음을 즉시 깨달았기 때문에 만델라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공식 행사에서는 반드시 백인과 흑인이 좋아하는 <디 스템>과 <앵코시 세케레레>가 함께 국가로 연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은 미움을 털고 포용해주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이루어 집니다

◀눈물나는 밤엔 우며의 첫눈▶ 심방중에 들은 유머

지난 목요일, 김** 집사님덕 이사심방중에 정** 권사님이 들려준 학창 시절 친구(?)의 시험얘기.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의 이름을 쓰라는 문제에 "심학규"란 이름이 왜 그리도 생각이 안나는지 결국 쓰기를..

【답】 (영화 "심청전"의 포스터를 본 기억 더듬어) "허장강"

("삼국지"의 저자를 묻는 시험에 당시 인기 성인만화이던 '삼국지'의 저자 "고우영"을 썼다가 벌받던 기억도 추억으로 떠올랐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접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월 3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자칭 60점 목사와 100점 목사



『 60점 목사의 5가지 장점

- (1)자기 부족을 아니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 (2)직분이 중요함을 아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 (3)두려운 마음을 가지니 모든 면에 삼가 하며
- (4)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닌 것을 아니 성도들의 건의를 수용하고
- (5)무엇이나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주께서 능력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니 교회는 성숙 할 수밖에 없다.

100점 목사의 5가지 결점

- (1)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섬길 마음이 없고
- (2)어른 대접받고 싶어지니 굽힐 마음이 없으며
- (3)교회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니 큰소리만 치게 된다.
- (4)그러니 성도들은 재 신임 투표하자고 아우성치고
- (5)목사는 수용 못하니 교회는 불화 하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자기가 100점 짜리라고 착각하는데서부터 교회는 찬 가운이 돌고 성도들은 위축되어 생기를 잃고 교회 갈등만 증폭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직분자가 없어가 문제가 아니고 100점 짜리 직분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스스로 60점 밖에 아니 되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해 진다』

어떤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래는 "자칭 60점 장로..."인 것을 괜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목사로 고쳤습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칭 60점 짜리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한해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새해 아침엔
해 뜨는 모습을 구경하라
아름답고 신선한 광경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드름에 대해 너무 고민마라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다
얼마후엔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오히려 그때를 즐겨워 하거라

주 일 예 배

-신년주일-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7(신년예배)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58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노은숙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8:1-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건강한 신앙'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40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정관영,황경임 집사 가정,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5	노은숙	강은미	정관영,황경임	정관영,정덕수
12	이규임	경덕현	이재윤,마경춘	정성호,조용건
19	정희자	고성일	정성호,박하림	최득수,최장한
26	지찬영	권용일	최득수,오지영	최재학,최현철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7시



☆호사스런 아등들 세배하러 몰려다니고 멍기 멘 소녀 널뛰기 판 가운데 앉아 한 낮을 보내면 북소리 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밤을 이어가던 하얀겨울의 새해! 이젠 희미한 그림자로 남아있습니다. 새해 다짐만큼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졌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교우소식

*퇴원:임혜자 집사,쾌유하심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김동업 권사(신영화 집사 모친), 어제(토요일)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차명은 성도(안희진 성도 남편)께서도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2. 구역예배: 1월 구역예배는 쉬겠습니다.

3.결식자 봉사: 11일 (토)오전 10시-오후 1시.(김미애,윤하나,조용건)

*2인의 여성자원봉사자가 더 요청됩니다.

*결식자봉사관계로 식사친교주일은 매 셋째주일로 맞습니다(1월: 제1여성교회)

4.직분자 열할 분담과 서리집사 : 조금씩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할원칙:(1)성김의 실천: 부장-서리집사, 부원-서리집사,항존직

(2)작은 역할을 순수하게- 전체를 이루는 조화

5.갈보리 교우수련회

<일자> 1월 24(금)-26(주일) <장소> Henderson Camp

6.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

*준비위원장:최재학

*준비위원:이규임,박일영,신영화,윤형권,권용일,이재영

7.수요일예배 탐방기간: 1월1일,8일(첫째,둘째주) 수요일은 이웃교회 탐방주간입니다.

평소 생각에 두었던 교회의 수요일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시인들▶ 준다는 것

-안도현-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빈 손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 나 무엇 하나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 떨리는 내 손을 포개어 얹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스스럼없이 준다는 것

또 지난 한해를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툼도 미안함도 겨안고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요. 지나보니 눈에 흔히 띄는 들꽃조차도 따다 주겠다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손만 뻗으면 딸 수 있는 꽃인데도 말입니다. 그저 값이 좀 나가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천박함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고보니 주지 못했던 것은 값나가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